

### 도내 전공의 집단행동 예고... 지역사회 '촉각'

## 대학병원, 파업시 '비상진료'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의 집단행동 여부에 전북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자칫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14일 전북의사회 등에 따르면 전북의사회는 15일 오후 1시 전주시 완산구 전동 중앙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북의사회는 완경철총장에 집회 신고를 했으며 참여인원은 100명을 등록했다.

이날 집회는 성명서 낭독 등 30여 분간 선전전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전북지역 전

### 전북의사회, 오늘 의대정원확대 반대집회 예고

#### "집단파업만은 막겠다" ... 전북자치도는 '초긴장'

공의들의 집단행동여부다.

도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는 전북대병원 22개과 187명, 원광대병원 20개과 126명, 예수병원 20개과 77명 군산의료원 9명, 남원의료원 2명 등 총 401명이다.

이들은 현재 집단행동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결정에 맞춰 함께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불법

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가 이뤄진 뒤 본격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전공의들이 공식적으로 파업에 나서면 대응 TF를 구성해 전문의 중심의 비상 진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외래 진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인력을 투입하거나 진료 및

검사 시간 연장, 경증환자 진료 예약일 조정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될 때는 소방서, 지역병원 등의 협조를 통해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의과대학교 학생들의 파업동참여부도 관심이다.

도내 전북대와 원광대 의과대 학생들도 수업거부 등 파업동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초긴장상태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수련의병원과 의사회 등을 접촉해 집단파업만은 막겠다는 구상이다. /뉴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개혁신당, 화이부동·구동준이 정당"

### 이낙연 공동대표 "DJ 포용정신 되살릴 것"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4일 당 정책성 논란에 대해 "우리는 화이부동, 구동준이의 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개혁신당은 조금씩 다른 경로에서 모였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 아래 통합했다"며 "모두가 확고적이고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은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이재명 1인 정당으로 치달고 있는 거대양당의 폐해를 우리는 진지리치며 보고 있다"며 "개혁신당마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깨닫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며 "이견을 억압하는 교조적 양당체제를 극복하려고 나와서 함께 모인 개혁신당부터 교조적 태도를 갖지 않도록 늘 성찰하겠다. 다만 정치적 목표와 가치는 공유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뉴스

이 공동대표는 "우리에게 화해와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김대중대통령의 정신을 되살려 이어가겠다"며 "약간씩 다른 경로를 거쳐 모인 개혁신당이 조화를 이루어 국민의 소망이자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꿈을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꽃피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설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4월 총선에서 양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이 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 29%,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 20%를 훨씬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치불신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39%를 기록했다"며 "우리가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회합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

### 김중훈 경제부지사

#### 어업인 단체장과 소통 간담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14일 도내 어업인 단체장과 소통·간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부지사는 간담회에서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도내 수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수산업 관련 특례도 5개를 반영했다"며, "특히 시험어업 및 시험양식업 특례로 침체돼 있던 수산업에 활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다함께 민생살리기 정책을 통해 민생경기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어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도내 수산업을 대표하는 권영주(전북자치도 어촌계협의회장), 심명수(사 한국자율관리어업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김원택(사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김철호(사 전북자치도 내수면양식 연합회장), 이항희(사 전국내수면 양어양식협회장), 김윤종(사 한국메기양식 전북지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재난안전 업무를 조율하고 현안에 대응하고 도·시·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4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2024년 시·군 재난안전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 전북자치도, 도민안전 위해 시·군과 머리맞대

### 시·군 재난안전 정책회의 열고 재난 발생 가능성 대비 전략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재난안전 업무를 조율하고 현안에 대응하고 도·시·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4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2024년 시·군 재난안전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해 도 및 14개 시·군의 재난안전 부서장들이 참석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 정책여건 분석, △전북도의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2024년 달라지는 시책, △재난안전 현안업무 협조요청, △시·군 건의사항 청취 등 이었다.

먼저,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안전보험 보장률목 및 보상한도 확대, 중소기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확대, 안전취약계층 종합 전기안전점검 지원, 안전취약계층 재난방

송 청취 지원을 위한 스마트폰 앱 배포, 수요조사를 통한 안전감찰분야 대상 선정 등 2024년 신규·확대된 안전관련 민생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협조 사항으로는, 재난 예방을 위해 다중이 참여하는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집중안전점검 추진 및 점검결과에 대한 관리, 정밀안전점검 대상지 발굴, 재해예방사업 해빙기 안전점검 철저 등을 주문했다.

또한,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및 우기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등 각종 사업의 신속 집행, 2025년 재해예방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행정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이외에도, 비상대비 및 민방위 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각종 훈련에 적극적 참여, 한파설터 현행화 등 관리 철저,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내진보강사업 예산반영 및 사업 홍보 등 협조를 구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회의는 지역 사회의 재난안전에 대한 더 나은 대비와 대응을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무엇보다도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무척 뜻깊고, 앞으로도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 통해 도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에서의 재난발생 가능성과 대비 전략을 공유하고, 향후 재난안전 대응에 필요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입법

#### 법률고문 변호사 2명 위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4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각각 광역수 변호사와 김진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곽 변호사(사 법시험 50회)는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을 거쳐 현재 광역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김 변호사(제3회 변호사 시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며, 법률사무소 승소의 대표변호사이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과 법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며, △의정활동 관련 법적 현안 △의회 관련 소송수행 및 자문을 맡게 된다.

위촉된 변호사들은 "법률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주영은 의장은 "12월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 입법기능 활성을 위한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의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환경에서 명료한 법률 자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새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 위해 전력"

### 김관영 도지사, "명절 민생경제 회복이 최대 화두"

#### "고향 살리는 일"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당부

#### 데이터 중심 정책 전개·청렴도 향상 노력도 주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간부회의에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등 인내심을 갖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도정에 임하라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설 명절 기간에 민생경제 회복이 최대 화두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특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설명회에서 도민께 한 약속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각 실국장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차 특례 발굴을 위해 시군을 비롯해 도민

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되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모금방법이 크게 완화되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살리는 자랑스러운 일이며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영 지사는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총선 이후 "제21대 국회가 마무리 되기 전인 5월 국회가 현안 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때 추진할 사안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23년 전북 사회조사' 결과 도민의 삶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는 지표들을 바탕으로 각 실국의 로드맵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통계와 근거에 입각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실국별로 우리도의 통계전문가와 협업체 정책을 정교하게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청렴의 원칙을 강조하며, "전 청원은 반부패 청렴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고위 공무원과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청렴도 향상과 책임의식을 제고하자"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민주 김의겸-채이배 예비후보, 단일화 선언

### 채 예비후보 불출마... 군산, 김의겸·신영대 경선 구도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군산 지역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채이배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했다.

두 예비후보는 14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선언한다"며 채이배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고 김의겸 후보를 돕겠다고 발표했다.

채 예비후보는 "군산 발전을 위해 경제와 일자리 전문가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 공인회계사로, 국회의원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실력과 경험을 쌓아온 제가 고향 군산에 돌아온 이유"라며 "그러나 저의 목표인 '군산 경제·문화를 이베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치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득권의 벽을 허물기 위해 단일화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채이배 후보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 감사하다"면서 "그 뜻을 이어 받는 것은 군산에서 승리로 보답하는 길밖에 없다"면서 "채 후보가 지리는 내려놔도 그의 경험과 이성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사진 오른쪽) 예비후보와 채이배 예비후보가 14일 단일화를 선언했다.

"RE100 실현, 일자리 창출 등 채 후보의 공약을 이어 받겠다"고 약속했다. 김의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선대본부장직을 제안, 채이배 후보가 수락했다.

한편, 채이배 예비후보의 불출마로 군산지역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김의겸, 신영대 후보 간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특별취재반

## 4월 국회의원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 "부동산·가계부채 등 5대 솔루션"



### 김광중 예비후보, 전주를 출마

"부동산, 가계부채, 지방소멸, 고품질, 저출생 등 5대 문제 해결 솔루션을 가진 저 김광중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지난 재선거와 마찬가지로 △전주를 강남과 미국 어바인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교육도시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전주 안착 지원 △민회와 어바인을 벤치마킹해 제조업 분야 지원 및 강화 △정북도청사역 신설 △효도수당 200만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별취재반

지난해 전주를 재선거에 나선바 있던 무소속 김광중 예비후보(61)가 오는 4월 22대 총선 재선거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14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